


이제는 인천입니다

2025 APEC 정상회의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 인천입니다

2조 4천억원 경제효과! 세계 10대 도시로의 도약!

300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2025 APEC정상회의 “인천 유치”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인천광역시

IFEZ JOURNAL

2024. 5+6 VOL.117

ifez



Vol.117



www.ifezjournal.co.kr

IFEZ JOURNAL

2024. 5+6
IFEZ BIMONTHLY MAGAZINE

인천경제자유구역 매거진
제117호

발행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발행일
2024년 5월 28일
발행호
통권 제117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54-6280548-000013-07
담당부서
미디어문화과 홍보팀
기획·디자인
웨스트코㈜
IFEZ저널 웹진
ifez.go.kr/journal



GO! 웹진
www.ifezjournal.co.kr
QR코드를 스캔하면
웹진으로 이동합니다.



CONTENTS

BUSINESS	04	VISION	세계 10대 도시 인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과 전략
	08	TOPIC	투자유치 주요소식
	12	BOARD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IFEZ 활동
	16	SPECIAL INTERVIEW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EAAFP 제니퍼조지 대표
PARTNERS	20	SPECIAL ISSUE	GLOBAL BUSINESS TREND 도전에 맞서는 IFEZ
	24	INFO	APEC정상회담 개최도시 선정관련 외국인 설문조사 결과 발표
	26	WITH US	입주기업 '리보(Rivo)' 탐방 인천스타트업파크 소식
LIVING&CULTURE	32	COMMUNITY	IFEZ 커뮤니티 한 눈에 보기
	34	TRIP	여름날 걷기 좋은 도시 : IFEZ 노을산책 투어
	38	CULTURE	아트센터인천의 What's on?
	40	MICE	송도컨벤시아 ISSUE & CALENDER
	42	EVENT	일상 한 컷 / 랜드마크 퀴즈



세계 10대 도시 인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과 전략

2024년, 세계 10대 도시를 목표로 삼고 나아가고 있는 인천. 특히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 를 기원하며 본격적으로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세계 10대 도시’ 인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과 전략을 다시금 돌아보고 목표를 상기하며, 그 안에서의 IFEZ의 노력도 살펴본다.

‘세계 10대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방향제시

먼저 지난해 6월, 취임 1년을 맞은 유정복 인천시장은 ‘글로벌 허브 도시의 초석을 다진 인천, 이제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 포부를 밝혔다. 이에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인천, 세계 10대 도시로의 힘찬 도약’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1

방향제시

구도심의 노후화를 개선하고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다.

영종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인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료 무료화는 중앙정부와의 치열한 논의 끝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인천 도심을 단절시켰던 인천대로를 지하화해 도로 통행은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그 상부는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되살린다. 그리고, 서해 5도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백령공항 건설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확정(‘22. 12. 27)돼 본격 추진 중이다.

특히, 수도권 매립지 해결을 위한 4자 협의체가 재가동되면서 합의사항 이행에 가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또한 오랜 기간 지지부진했던 송도랜드마크타워 및 청라 시티타워 등의 핵심사업들도 정상화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2

방향제시

인천시는 재외동포청 유치 등을 통해
1000만 도시 인천시대를 열면서
글로벌 허브 도시로서의 초석을 다졌다.

인천시는 재외동포청 유치가 확정되자마자 재외동포 출범 지원단을 가동하고 재외동포 웰컴센터 개소, 한상 비즈니스 허브 육성 등 1,000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또, 지난 5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의 성공적 개최 등으로 인천의 국제도시 및 비즈니스 역량이 입증된 만큼 이를 기반으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인천 유치를 위해 시민과 함께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다.

3

방향제시

바이오, 모빌리티 등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해 인천의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생산도시인 인천은 초격차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롯데바이오로직스는 국내 바이오 의약품 생산 시설의 조속한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연구센터를 착공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추가 투자를 확정하고, 10월에는 글로벌 바이오 소부장 기업인 독일 싸토리우스의 제조연구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클러스터 입지를 강화했다.

또, BMW 연구개발(R&D)센터 유치(‘23. 2.), 도심항공교통(UAM) 글로벌 협력체 구축(‘22. 11.) 등 미래 모빌리티 연구·개발과 산학연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기술 교류 협력에도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 화물기 개조사업(‘23. 4.), 미 아틀라스 항공기 중장비 센터 설립(‘22. 12.)을 추진하면서 항공 정비(MRO) 산업 생태계 구축 기반도 다지고 있다.

GLOBAL BUSINESS TOP 10

4

방향제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하다.**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생안정특별위원회와 다가올 미래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미래준비특별위원회를 발족했으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난방비 지원,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 확대 등 시민이 필요한 생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타필드청라 멀티스타디움 건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설립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2045년 탄소중립 조기 실현을 위한 비전을 선언하는 등 글로벌 도시로서의 책임과 위상도 높이고 있다.

**IFEZ, 세계 10대 도시를 위한
노력 ‘CES 2024’ 참가**

5

방향제시

**세계 10대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과제도 제시했다.**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 반도체 특화단지·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 등을 통해 인천을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만들어 가고, ▲GTX-D Y자·인천발 KTX 등 시민과 약속한 사통팔달 철도망 구축과 ▲제물포르네상스, 북부권종합발전계획 등 인천 재창조 프로젝트를 통한 원도심 균형발전,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과 인천 고등법원·해사법원 유치 등 행정서비스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세계 10대 도시’ 위한
<인천 미래 산업지도 프로젝트>**

지난해 11월, 인천시는 세계 10대 도시 도약을 이끌 인천 미래 산업지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인천의 도시가치 재창조 및 세계 10대 도시 도약을 위해 추진할 <인천 미래산업 지도 프로젝트>는 ‘원도심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균형발전으로 세계 10대 도시 도약’의 비전과 ‘제조업 르네상스 산업벨트 기반 미래 첨단 산업도시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3대 추진 전략과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1

추진전략

첫 번째 추진전략은 ‘세계 10대 도시 도약 이끌 첨단산업 벨트 구축’의 세부 과제인 ▲송도·남동·영종의 「바이오·반도체·소부장 벨트」 ▲청라의 「로봇·모빌리티·첨단의료 벨트」 ▲검단·영흥의 「친환경·미래에너지 벨트」 ▲주안·부평·계양의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벨트」 4개 첨단산업 벨트 구축이다.

2

추진전략

두 번째 추진 전략은 ‘함께 성장하는 균형발전 위한 산업거점 재도약’으로 세부 과제는 ▲산업단지 재생사업, 스마트그린산단 촉진,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 사업을 통한 ‘산업거점 재생·혁신’ ▲계양테크노밸리·에코사이언스파크·남동도시첨단 등에 추진되고 있는 ‘신(新)산업거점 조성’ ▲청라, 영종, 송도, 영흥, 남동, 계양, 주안, 부평 등 지역 간 ‘혁신·상생·공유 균형발전’이다.

3

추진전략

마지막으로 ‘청년과 시민이 함께 미래 선도하는 산업공간 가치 재창조’ 추진 전략의 세부 과제는 ▲산업공유지 기능 확대, ▲산업문화공간 마스터 플랜을 통한 ‘산업공간 가치 재창조’, ▲벤처, 창업, 전시, 문화공간 조성 등 ‘스타트업·스케일업 복합공간 조성’이다.

한편, 인천시와 인천연구원이 중·장기적 기대효과를 분석한 결과, 2030년에 직접효과로 부가가치창출 5조 5천억 원, 간접효과로는 생산유발 39조 7천억 원, 부가가치유발 21조 원, 고용유발 17만 4천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2050년에는 직접효과로 부가가치창출 73조 8천억 원, 간접효과로는 생산유발 442조 5천억 원, 부가가치유발 265조 4천억 원, 고용유발 166만 3천 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시는 지난 1월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인 CES 2024에 참가, 인천·IFEZ 홍보관을 운영했다. 처음 참가한 CES 박람회에서 전 세계의 혁신적 기술 기업들의 다양한 기술 트렌드를 한 눈에 살펴 보며 새로운 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이번에 운영한 인천·IFEZ 홍보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마트 도시인 인천답게 세계인들의 많은 관심이 있었으며, 이곳에서 바이오, 반도체 등 대표 산업의 적극 홍보와 세계적인 동향을 파악하며 세계 10대 도시 인천으로서의 한 걸음을 더 내딛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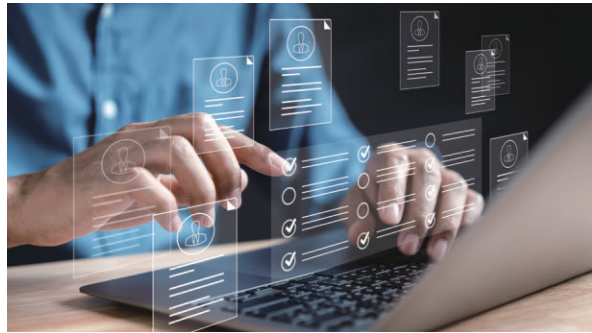


TOPIC

of INVESTMENT ATTRACTION

2040 비전·전략 수립 통해 IFEZ 미래 도약 견인 내·외부 환경 분석 통해 주요 이슈·대응과제 발굴, 도시경쟁력 강화

IFEZ가 2040년까지 도시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비전·전략 수립을 위한 T/F 구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 행보

IFEZ는 오는 2040년까지 도시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전·전략 수립에 나섰다. 지난 3월, 윤원석 IFEZ 청장은 'IFEZ 비전전략 2040 수립 테스크포스(T/F) 착수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미래 도약을 위한 행보에 나선다.

이번 비전·전략 수립은 대외적으로는 미국·중국의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 확산, 탄소중립규제, 4차 산업혁명 기술 확산 등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포됐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공급망 다변화, 과도한 규제, 기업성장 사다리 약화 등 기업 전반의 역동적 저하에 적극 대응하고 인천과 IFEZ가 초일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돋움이라 볼 수 있다.

특히 IFEZ는 T/F 회의에서 향후 2040년까지의 미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내·외부 환경 분석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자문·협력 등을 통해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대응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될 2040 비전·전략

2040 수립 T/F는 △투자유치 업무 혁신(투자유치 전략, 프로세스 체계화, 경제외교 플랫폼, 개방형 협업), △뉴홍콩시타·제물포르네상스 초석(경제자유구역 확대, 가용용지 확보, 산업단지 등 조성지원, 도시 인프라 구축),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본 글로벌 기업·창업 초기 단계부터 해외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생태계 조성), 글로벌 연구개발(R&D)센터 유치, 혁신창업가 유치, 투자·수출 지원, 기업지원 프로그램 신설, 애로해결 및 규제 개선, 스타트업 펀드 조성), △글로벌 미래도시 조성(최상 정주여건 조성, 워터프런트 사업, 친환경 생태도시, 도시관리 비용 절감, 스마트시티 확장), △ESG 경영·조직문화 개선(ESG경영 도입, 미래전략 수립, 3대 경영혁신, 소통과 협력으로 활력 넘치는 조직운영) 등 5개 부문으로 나뉘어 오는 5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IFEZ 윤원석 청장은 "인천의 초일류 세계 10대 도시 도약을 위한 IFEZ의 중점 역할을 정립하고 앞으로 글로벌 투자유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과 연계한 첨단산업 유치, 글로벌 인재유치 등을 통해 IFEZ의 미래 도약을 견인할 비전·전략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로젠 송도글로벌지능센터 착공 아시아 최대 규모 유전체 빅데이터 허브 구축

**IFEZ 송도 바이오클러스트,
25년도 하반기 완공 목표로 아시아 최대 규모
유전체 빅데이터 허브 구축 기대감**

유전체 분석시설 입주로 송도바이오클러스터 산업구조 고도화

글로벌 유전체 분석 기업 마크로젠의 아시아 최대 규모 글로벌지능센터 건립이 본격 착수한다. 대기업 위주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이 주를 이루던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의 산업 구조가 다변화되고 산업 생태계가 완성될 전망이다.

지난 4월 24일 송도국제도시 5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에서 마크로젠의 송도글로벌지능센터 착공식이 개최됐다. 마크로젠은 2025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유전체 빅데이터 허브 구축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에 착공될 송도글로벌지능센터는 송도국제도시 5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B) Ks10-1필지(송도동 210-2번지)에 연면적 약 18,000㎡,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마크로젠 지능센터가 송도 글로벌지능센터로 확장 이전돼 통합 운영될 예정으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센터는 유전체 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해 헬스케어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글로벌 유전체 빅데이터 허브 기능을 담당할 것이다. 이와 함께 IFEZ는 마크로젠의 유전체 분석 연구시설이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의 바이오 산업 구조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전체 빅데이터와 AI 기술의 융합, 마크로젠

한편 지난 1997년 설립된 마크로젠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분야 국내 1위, 세계 5위의 역량을 갖고 있는 유전체 분석 전문 기업이다. 153개국, 18,000여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외 매출 비중이 50%에 달한다.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이와 함께 마크로젠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규제특례 1호 기업으로 송도국제도시에서 유전자 검사 실증특례 연구를 진행했다. 또한 규제샌드박스는 송도국제도시 생활권자 2천명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민간 기업에 직접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개인 유전자 분석 검사 실증 연구다.

김창훈 마크로젠 대표는 “송도글로벌지능센터의 착공은 마크로젠이 세계적인 디지털 헬스케어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유전체 빅데이터와 AI 기술의 융합을 통해 개인별 정밀의학 실현에 기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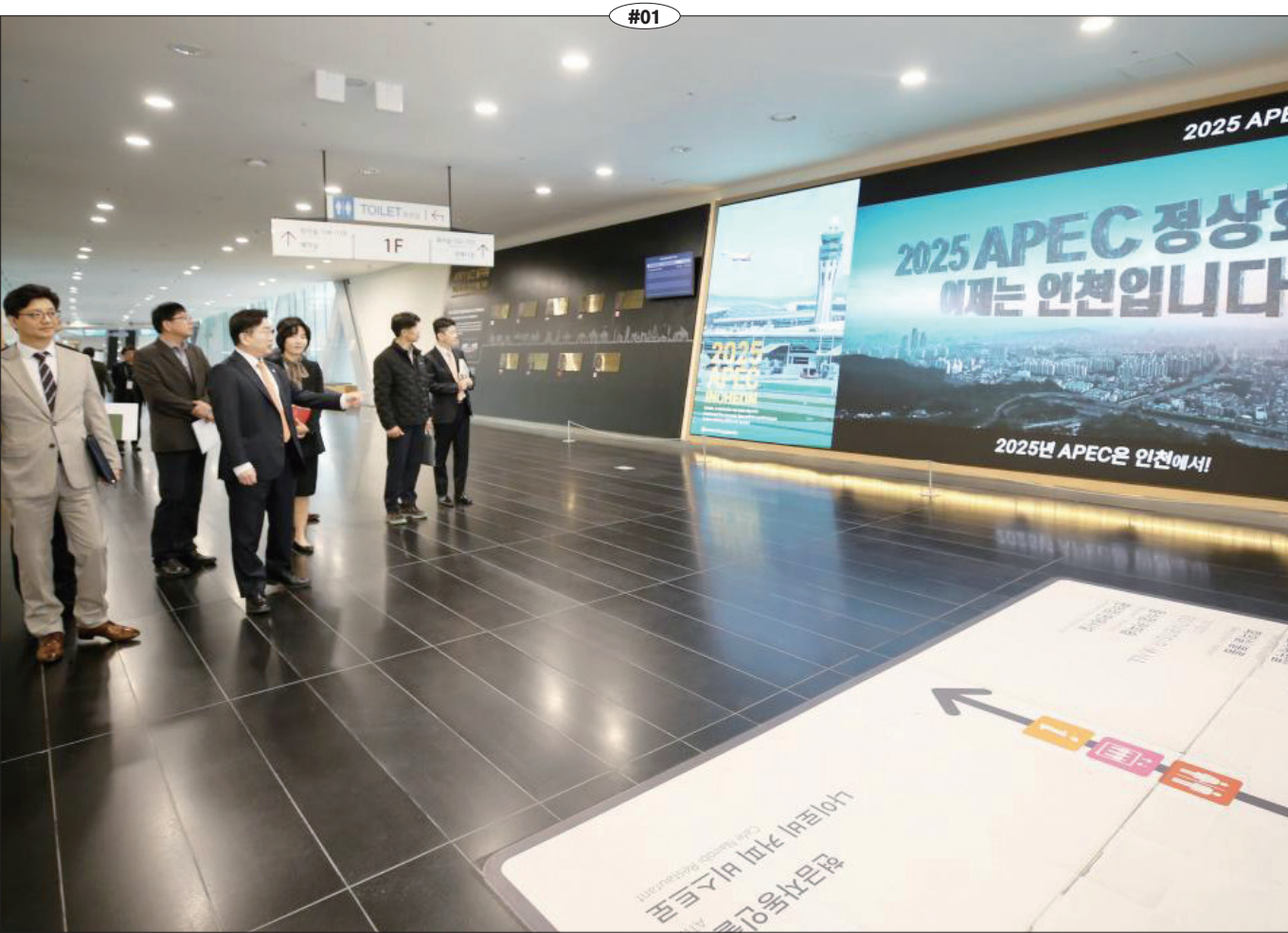
윤원석 IFEZ 청장은 “마크로젠이 글로벌 정밀의학 선도 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바이오 산업 구조를 한층 고도화하는 등 상호 윈윈을 기대한다”며, “입주하는 날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마크로젠 사업 개요

사업내용	송도글로벌지능센터 건립 * 정밀의학 기반 콘텐츠와 솔루션 제공하는 유전체 빅데이터의 아시아 허브 역할
사업위치	송도국제도시 5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B)(송도동 210-2)
부지면적	6,017㎡
건립규모	18,741㎡
건립기간	2024 ~ 2025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IFEZ의 활동



IFEZ 청장, 초일류 IFEZ 위한 본격 행보 시작

윤원석 IFEZ 청장이 초일류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향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먼저, 윤 청장은 취임 직후 시작한 업무 파악과 소통을 위한 4개 본부, 18개 부서에 대한 첫 주요 업무 보고회를 모두 마쳤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현안사업의 쟁점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면서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상대적으로 미진한 사업은 보완하여 더욱 탄탄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경제청의 핵심기능인 투자유치 분야는 담당 PM(Project Manager)들과 모든 현안사업들을 놓고서 시작부터 미래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며 성과를 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까지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 자리에서 새로운 전략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방위적인 활동으로 대규모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IFEZ는 다각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글로벌 미래 도시로 도약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IFEZ의 활동을 소개한다.



IFEZ, 4월 청렴의 날 캠페인 벌여

IFEZ는 지난 4월 25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4월 청렴의 날'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직원들은 청렴 홍보 피켓을 들고 △갑질·소극행정 아웃(Out)! 청렴·적극행정 업(Up)!, △업무 추진 시 절차 위반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 적극행정 면책 요건 충족과 관련한 사전 컨설팅,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인천청렴뉴스'를 나눠줬다. 또한 이 날 진행된 청렴 캠페인은

투자개발·공사 등 청렴이 요구되는 업무가 많은 경제청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함양하고 깨끗하고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원석 IFEZ 청장은 “청렴 실천을 통해 깨끗한 공직 문화를 만들어 IFEZ를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도시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FEZ, 투자유치 6억 달러 달성에 적극 매진

IFEZ가 올해 외국인 투자유치 목표액을 전년도 대비 2억 달러 증액된 6억 달러로 정하고, 첨단글로벌 기업 유치 및 창업생태계 조성, 핵심전략 및 서비스산업 허브 조성 등의 전략을 통해 투자유치에 힘을 모은다. IFEZ는 올해 목표 6억달러 달성을 위해 △첨단 글로벌 기업 유치 및 창업생태계 조성, 시민체감 중심의 서비스산업 허브(HUB) 조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유치 환경 조성을 주요 추진 전략으로 정했다. 먼저, 기업 투자하기 좋은 글로벌 정주환경과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바이오·헬스케어, 스마트제조, 항공·복합물류, 지식·관광서비스 등 핵심전략산업 중심의 선도기업 투자 유치와 해외인력 유치 양성 공동 연구 프로그램 및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첨단 글로벌 기업유치 및 창업생태계 조성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또 시민체감 중심의 서비스산업 허브 조성과 관련해 △마린유겐트 연구소 협약, △인천글로벌캠퍼스(IGC) 학생기숙사 교수 아파트 증축, △청라신세계 복합쇼핑몰 사업, △청라 코스트코 준공, △저온복합물류 센터 개발 착공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 산업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필리핀 LSC그룹 회장단 인천시 방문

IFEZ가 지난 4월 22일 필리핀의 항공, 건설, 광산 등 14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필리핀 재계 10위권 대기업인 LCS그룹의 Chavit Singson(샤빗 싱손)회장단이 인천시를 방문하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면담 자리에서 투자 관심을 표명했다. 샤빗 싱손회장은 한국의 K-뷰티와 바이오 산업이 가진 경쟁력에 주목하고 필리핀 고객 서비스 제공과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 도입 관련하여 국내 뷰티업체들 및 국내 유수 대학과 함께 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방문 목적을 밝히며, 특히 인천을 최적의 투자처로 생각하고 있다고 가까운 시일 내 투자의향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투자의지를 확실히 했다. 또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공항과 항만으로 글로벌 천만 인구와 초 연결될 수 있는 인천시에 투자 관심을 환영하며, 이번 투자 관심이 좋은 사업 계획으로 구현되어 인천시가 K-뷰티 산업의 기반 조성과 해외 진출의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청라국제도시, BMW 그룹 R&D 센터 코리아 개소

IFEZ 청라국제도시에 BMW 그룹 연구개발(R&D) 센터가 확장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지난 2015년 인천 BMW 드라이빙 센터 내에 처음 개소한 BMW 그룹 R&D 센터 코리아는 BMW 그룹 내에서 유럽 제외 글로벌 다섯 번째로 한국에 설립된 연구개발 시설이다. BMW 코리아(주) 주관으로 지난 4월 22일 청라 IHP(Incheon Hi-Tech Park)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R&D 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BMW 그룹 R&D 센터 코리아는 지난해 5월 착공해 11개월만에 최근 완공됐다. 연면적 2,812.5㎡ 규모의 단층 건물로 조성됐으며 사무 공간과 정비 및 실험실, 인증 실험실, 전기차 충전기 시험동, 연구실 등의 테스트 랩이 마련돼 있다. 테스트 랩에는 차량 인증, 전기화 기술 검증 등을 위한 최신 시설이 갖춰졌다. 이 곳에서는 △국내 수입되는 차량의 인증, △제품 개발 업무 지원, △국내 기업, 연구시설 및 대학들과 협력해 프로토타입 등을 함께 개발하는 ‘BMW 테크놀로지 오피스’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IFEZ,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신청 접수

IFEZ가 오는 8일부터 IFEZ 내 민간주택을 대상으로 신재생 에너지 설치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민간 부문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와 친환경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것으로 민간주택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및 연료전지) 설치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약 62개소에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할 계획이며 △태양광은 3kW 기준으로 120만 원, △태양열(6㎡ 기준)은 97만 원, △지열(17.5kW 기준)은 318만 원, △연료전지(1kW 기준)는 317만 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IFEZ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99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했다. 보급 실적은 태양광 587개소 1,945kW, 태양열 2개소 12㎡, 지열 8개소 140kW, 연료전지 2개소 2kW 등이다.



IFEZ, CES 2024 참가 인천 기업들과 간담회 개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윤원석 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CES 2024’에 참가한 인천지역 기업들과 간담회를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매년 1월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 박람회로 전 세계 신기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다. 간담회에서는 윤원석 IFEZ 청장과 CES 2024의 인천 참가 기업 중 10개사 관계자들이 참석, 점심 식사를 겸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소통하는 ‘브라운 백(Brown Bag)’ 미팅으로 진행됐다. 간담회 참석 기업 다수는 CES 참가가 고객이나 투자자를 만날 수 있는 현장에서 글로벌 진출을 위해 보완해 나가야 할 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인천경제청이 스타트업 참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길 바랐다. 이에 IFEZ 청장은 CES 참가 및 후속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송도 소재 대학 산학연 협력 통해 바이오 산업 육성 한뜻

IFEZ 송도국제도시가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고 있다. 이에 IGC, 연세대 등 송도국제도시 소재 대학 산학협력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해 바이오산업 육성에 뜻을 모았다. IFEZ는 2일 송도 경원재 엠배서더 인천에서 연세대 융합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지 사업단 주관으로 ‘2024 송도 소재 대학 네트워킹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학 주도의 바이오클러스터 구축 및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혁신형 바이오 기업을 육성하는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현황 청취, 소통·협력을 위해 열렸다. 행사에는 윤원석 IFEZ 청장을 비롯 한균희 연세대 산학연협력단지 사업단장, 송도 소재 대학 산학 협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양대 ERICA 산학연협력단지 사업단의 산학협력 성공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송도 소재 대학들의 바이오 분야 산 학·연 현황 및 성공사례 발표, 자유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송도 워터프런트 1·2단계 건설 지역업체 참여 확대

IFEZ는 25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1·2단계 건설 공사와 관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서는 협약서 서명, 지역업체 참여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역건설업체와의 상생방안,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상생협약에는 △인천시 소재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지역자재·장비 사용, △지역 인력 일자리 창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IFEZ는 공공부문 건설 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공사에 협조를 요청하고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 착공한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1·2단계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2,225억 원을 투입했다.



IFEZ 내
<국제협력기구>를 만나다

철새들의 생존을 위한 디딤돌

① EAAFP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편



글. 신용석
IFEZ 국제협력특별보좌역

지구상에서 가장 큰 이동 철새들의 이동경로 중 하나인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철새와 그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새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새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돕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EAAFP(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지역사회의 국제적, 역사적, 문화적 지평을 넓혀 주고 있는 신용석 IFEZ 국제협력특별보좌역과 EAAFP 제니퍼조지 대표가 만나 대담을 나눴다.



Q — EAAFP 소개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은 각국 정부, 국제 보호 단체 및 기업의 자발적인 파트너십입니다.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의 이동성 물새와 그 서식지를 걱정하는 친구들이 모인 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새들이 긴 여정 동안 안전하게 쉬고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경로는 수천 년 동안 매년 새들이 정기적으로 이동하는 경로입니다. 전 세계 하늘을 가로지르는 9개의 조류 초고속도로 중 하나이며, EAAFP는 앞으로 수천 년 동안 이를 보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 IFEZ (송도, 영종, 청라)의 철새들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철새들의 이동경로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철새이동경로를 지나는 이동성 물새 중 멸종위기종은 어떤 새들인가요?

IFEZ는 복잡한 비즈니스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깃털 달린 친구들을 위한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EAAF에는 36종의 세계적 멸종위기종(위급, 위기, 취약)과 19종의 멸종위기 준위협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검은머리갈매기, 두루미, 알락꼬리마도요 등 많은 종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집 뒷마당에 새들의 안식처가 있는 셈이죠!

그 중 한 가지 종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름은 저어새인데요. 저어새는 멸종위기종이자 한국 천연기념물(205호)로 지정된 인천의 대표 종입니다. 인천은 저어새들에게 최고의 팬클럽과도 같은 곳입니다. 인천 남동저수지 안에 자리 잡은 두 개의 인공 섬은 이 귀한 새들의 훌륭한 번식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어새의 모든 것이 인천에 있으며, 2020년에는 국립생태원과 한강유역환경청을 중심으로 여러 기관이 힘을 합쳐 인천 저어새 공존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Q — EAAFP 사무국 대표로 부임하신지 약 1년이 다 되어가시는데요. 부임 이후, 어떤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펼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주로 '연결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제 파트너, 현장, 대중을 연결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새와 그 서식지를 위한 안전망을 짜는 것과 같습니다.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은 이 중요한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한 수준에서 연결성을 증진하기 위해 사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선, EAAFP는 철새이동경로서식지네트워크를 통해 국제 파트너와 서식지사이에 다리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를 가로지르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서식지들이 모두 EAAFP의 우산 아래 협력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네트워크는 단순히 보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새들이 이동하는 동안 안전한 안식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통합된 전선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내에서 지속 가능한 관리 관행을 장려함으로써 EAAFP는 철새들의 생존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여 멸종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EAAFP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지식 전파 및 이해의 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들에게 철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도구와 자원을 갖추도록 만듭니다. 과학 연구부터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까지, EAAFP는 조류 보호에 관해 모두가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 국제협력기구로 인천 송도에서 지내보신 소감은 어떠신지, IFEZ에서 근무하시는데 있어서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은?

송도에 본사를 둔다는 것은 국제 직원과 해외 방문객 모두에게 놀라운 경험입니다. 한국 최고의 국제공항이 바로 옆에 있어 귀국하거나 중요한 방문객을 맞이하는 일이 간편하고 효율적입니다. 현대적이고 계획적인 도시, 깨끗한 공원, 잘 정돈된 거리와 도로가 있는 송도는 언제나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며, 다양한 최고급 호텔과 레스토랑이 있어 일류 국제 허브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살면서 마주하는 가장 큰 도전과제 중 하나는 언어입니다. 국제적인 직장에서 벗어난 배우자나 파트너들은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를 읽거나 말할 수 없어 고립감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저는 IFEZ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강좌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답니다.



Q — 필환경이란 단어부터 시작하여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과 상생하는 삶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더욱 필요할까요?

환경을 생각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전 세계가 기후 위기와 생물 다양성 손실 및 감소라는 공동의 환경 문제에 직면하면서 자연 서식지 보호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철새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멋진 생명체는 번식지에서 월동지로의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며, 그 과정에서 중요한 습지와 갯벌, 호수, 강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토지와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 불법 사냥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존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동아시아-호주 철새 이동 경로를 따라 급속한 경제 발전과 급증하는 인구 증가는 이러한 중요한 서식지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시화가 자연 경관을 잠식/침범하면서 습지가 놀라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으며, 철새들은 고된 여정 동안 휴식과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한 철새들을 한 개인이나 국가가 혼자서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례 없는 규모의 국제적인 협력입니다. 철새들이 이동 경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전 세계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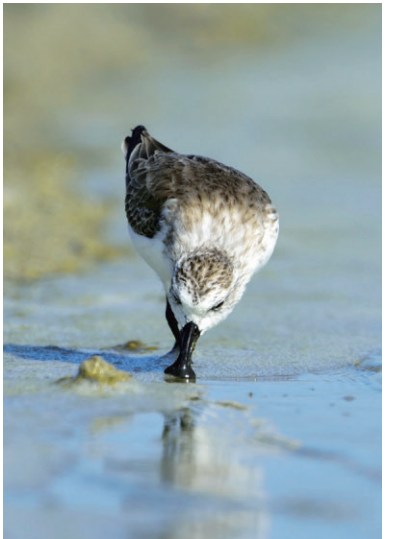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환경 보호는 단순한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포함한 수많은 종의 생존을 위한 실질적인 필수 요소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국제적인 협력과 환경 보호에 대한 마음가짐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IFEZ 저널을 통해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요.

우리 모두 IFEZ가 비즈니스 혁신과 성장의 중심지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 또 다른 종류의 성장, 즉 우리의 자연 세계, 생물 다양성의 성장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생태계를 풍요롭게 하는 철새에 대해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들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새들도 집이라 부를 수 있고, 먹이를 찾을 수 있고, 긴 여정 끝에 지친 날개를 쉴 수 있게 할 곳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단순히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번성하고 사람과 새가 모두 번성할 수 있는 조화로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의 역할입니다. 이 파트너십은 조화의 건축가와 같아서 우리의 조류 친구들이 그들의 이동 경로에 안전한 피난처를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EAAFP와 협력하고 우리의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전 지구적 보존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공유된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 인천시, 크고 작은 기업, 그리고 인천 시민 여러분께 여러분의 성원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적 후원을 통한 것이든, 기업 파트너십을 통한 것이든, 아니면 단지 말을 퍼뜨리는 것이든, 여러분의 기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EAAFP
홈페이지
바로가기

GLOBAL BUSINESS TREND



도전에 맞서는 IFEZ

FDI(외국인직접투자), IFEZ, 그리고 진화하는 생태계

FDI는 비즈니스 성장을 촉진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정부와 기업의 초석이 되고 있다.



글. Don Southerton
(CEO of Bridging Culture Worldwide)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직접투자)는 비즈니스 성장을 촉진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정부와 기업의 초석이 되고 있다. FDI는 거시경제와 미시경제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FDI란 한 국가의 기업이 다른 국가의 사업이나 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국제 상거래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 FDI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진화하는 생태계이기도 하다.

FDI의 핵심 이점은 다음과 같다.

①경제 성장	많은 신흥 경제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FDI를 받는 국가는 새로운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더 높은 경제 성장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②일자리 창출	FDI는 대부분 이를 유치하는 국가에서 새로운 사업 창출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과 임금 인상 효과를 가져온다.
③기술	FDI는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고 기술 전문 지식을 위한 허브를 구축하는 경우가 많다.

Stepping Back

2000년부터 2008년까지는 전 세계 FDI의 초기 성장기였다. 이 시기에 전 세계에서는 FDI 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97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은 수출 중심의 국내 기업을 넘어 경제의 외연을 넓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당시 다른 아태지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FDI 사례가 급증했다.

경제학자들은 경기 침체와 재정 위기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완충 장치로 FDI 유치를 권장했다.

2000년대 초반, IFEZ는 국내 서해안의 국제 비즈니스 친화적 허브를 지원한다는 비전을 지향했다. 인천의 송도 IBD(현, 송도국제도시)는 간척지에 서구식 편의시설을 갖춘 약 1500에이커 규모의 센트럴파크, 국제학교, 잭 니콜스(Jack Nichols)가 설계한 골프장 등을 갖추었다. 이

모든 시설은 인천항 및 국제공항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했다.

수년에 걸쳐 이 지역은 FDI를 넘어 주거, 국내 기업, 글로벌 캠퍼스, 제약 허브, 스타트업 센터는 물론, 녹색 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과 같은 국제기구 유치 등을 통해 그 역할을 확장해나갔다. 현재 송도는 청라국제도시, 공항을 낀 영종국제도시와 더불어 IFEZ의 세 지구에 속한다.

동아시아에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IFEZ의 이 세 개 지구는 저마다 다양한 장점을 자랑한다. 송도의 경우는 스마트 시티 혁신을 대표한다. 청라는 국제 비즈니스 및 금융 중심지이자, 첨단 산업단지를 갖추고 있다. 영종은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 허브이다. 천혜의 자연 경관과 함께 K-스타일 복합 호텔인 파라다이스와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를 자랑하는 영종지구는 관광지로도 각광받고 있다.

그렇다면 2024년 FDI를 위해 시장이 취해야 할 최선의 접근 방식은 무엇일까?

FDI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은 시장에서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지난 몇 년 간 전 세계적으로 FDI는 외국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모델에 국한되지 않고, 협력과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한 역동적인 생태계로 진화해 왔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 방식은 한국,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아일랜드, 네덜란드,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등 여러 국가에서 관찰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이 지적한 바와 같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처음부터 개발해야 하는 그린필드(Greenfield)에서는 예외적으로 경기침체 현상이 보일 수 있다. 데이터에 따르면 이러한 분야에서 FDI는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

그린필드(Greenfield)란?

그린필드는 이전에 개발된 적이 없는, 말그대로 녹지에 건설되는 건물들을 지칭한다. 영어로 초록색(green)은 “처음 시작하는”이라는 의미도 있는 만큼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이러한 그린필드 개발은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새로운 벤처를 시작하는 다국적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한국과 IFEZ는 그린필드와 스마트시티의 글로벌 허브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바이오-헬스케어, 스마트 제조, 첨단금융, 미래형 로봇, 정보통신(IT),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함은 물론, 유통-물류, 관광, 마이스(MICE) 분야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고자 한다.

신임 청장으로 선임된 윤원석 청장은 “앞으로 3년 동안 제약-헬스케어, 관광-레저, 첨단산업 분야의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를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스마트 시티(Smart City)’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어떤 이들에게 이 용어는 일과 삶의 균형을 제공하고, 최첨단 기술로 이러한 이점을 구현하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를 의미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스마트 시티 구축은 관련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선도 기업 및 도시와 협력하여 전 세계 모든 도시가 열망하는 글로벌 과제”라고 강조했다.

‘스마트 시티’의 개발은 민간 기술 기업과 지방 정부 간의 협력을 요구한다. 유정복 시장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스마트 시티”의 건설을 구상한다.

‘스마트 시티’를 중심으로 한 논의에서 정확한 정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유정복 시장의 언급처럼 공공 서비스의 질과 시민 복지 향상에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IFEZ는 FDI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는 비즈니스 성장의 촉진과 지속을 바라는 지방정부와 기업들에게 초석이 되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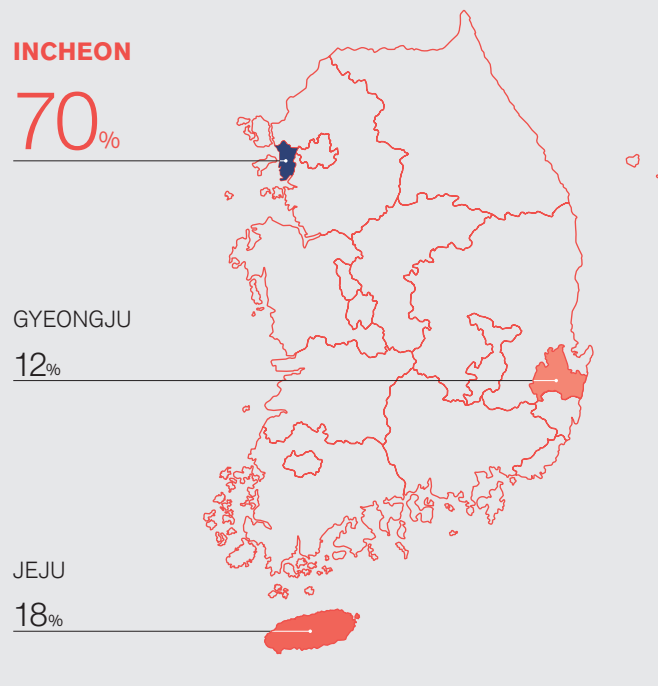
눈에 띄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진화하는 생태계로서 FDI의 면모이다. IFEZ는 도전에 맞서고 미래를 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관련 외국인 설문조사 결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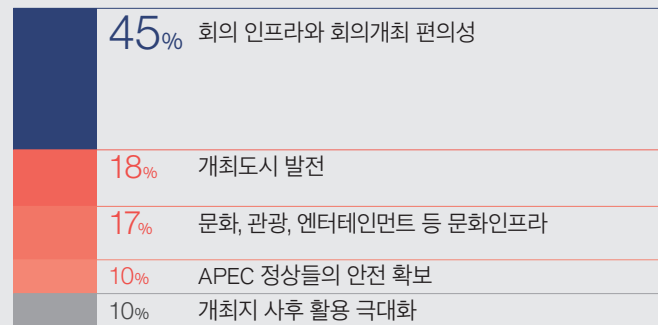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인천이 적합” 70%

대상 APEC회원국 및 비회원국 한국/외국 거주 외국인 공무원과 민간인(163명) 기간 2024. 4. 24. ~ 5. 16.

1. APEC 의제의 <1.무역 및 투자 자유화 2.사업 원활화 3. 경제 및 기술 협력,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 각 도시 중, 이 의제를 달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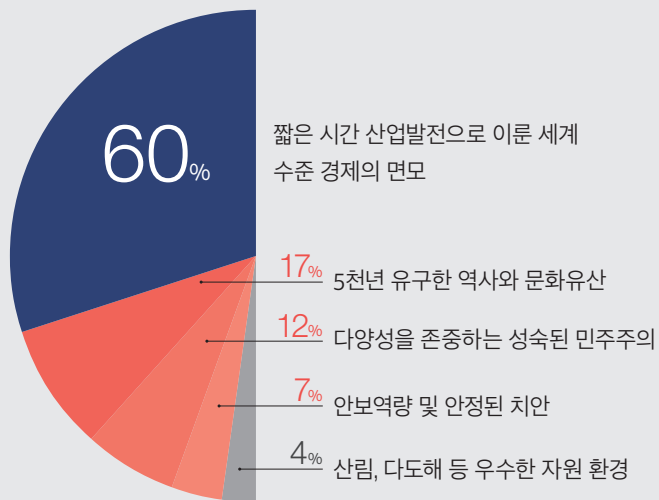


3. APEC 정상회의 개최관련 중요 고려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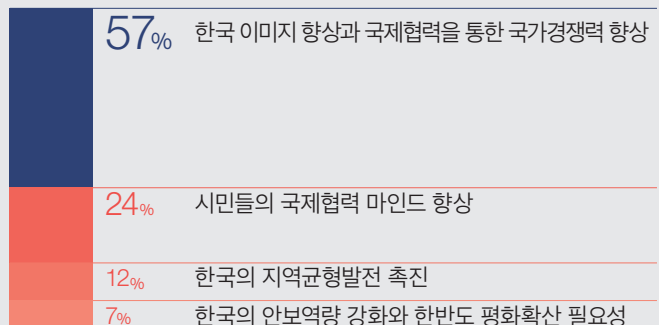
내년에 개최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에 APEC 정상회의 개최지를 앞두고 현재 인천과 제주, 경주가 3파전으로 경합 중에 있다. 글로벌 리서치 전문기관 LICA는 내년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과 관련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지난 19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2. APEC 정상들에게 알려야 할 한국의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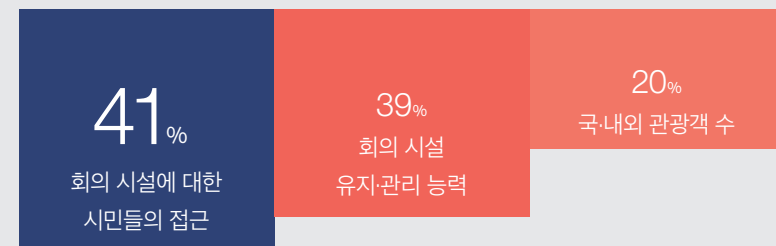


※ 이와 더불어 한국 거주 외국 공무원 중 72%는 '짧은 시간 산업발전으로 이룬 세계 수준 경제의 면모'를 정상에게 알려야 할 한국의 장점으로 꼽음

4. APEC 정상회의 개최로 기대되는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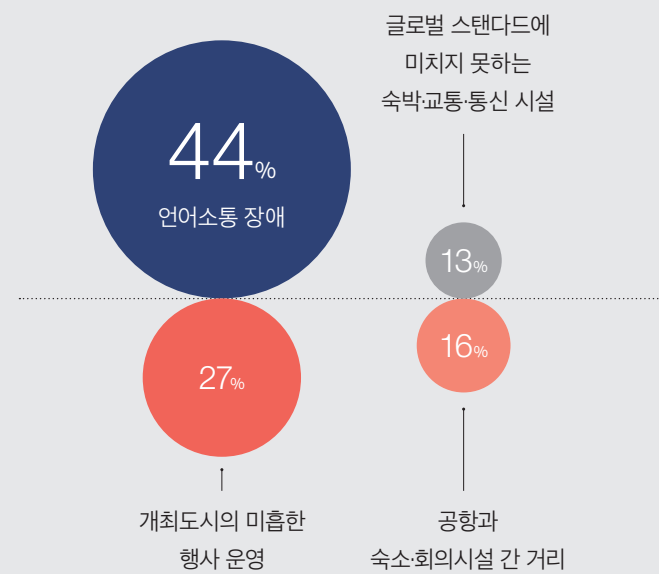


5. APEC 정상회의 이후 회의 시설과 다양한 사회 인프라의 지속 활용을 위한 필요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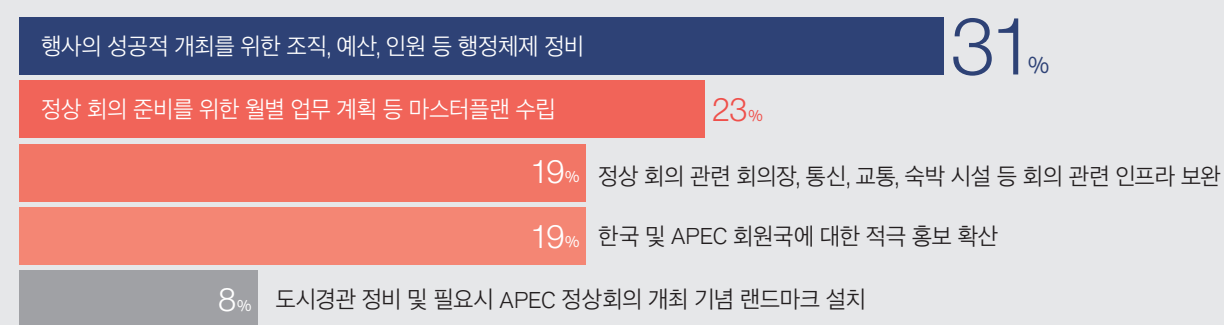
※ 다만, APEC 회원국 시민들은 '회의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더욱 중요(APEC시민 전체 중 46%)하게 생각하는 반면, APEC 비회원국들의 시민들은 '회의시설 유지 및 관리 능력'을 더욱 중요하게(전체 APEC 비회원국 시민 중 53%)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룸

6. APEC 정상회의 개최 시 세부 운영과 관련된 우려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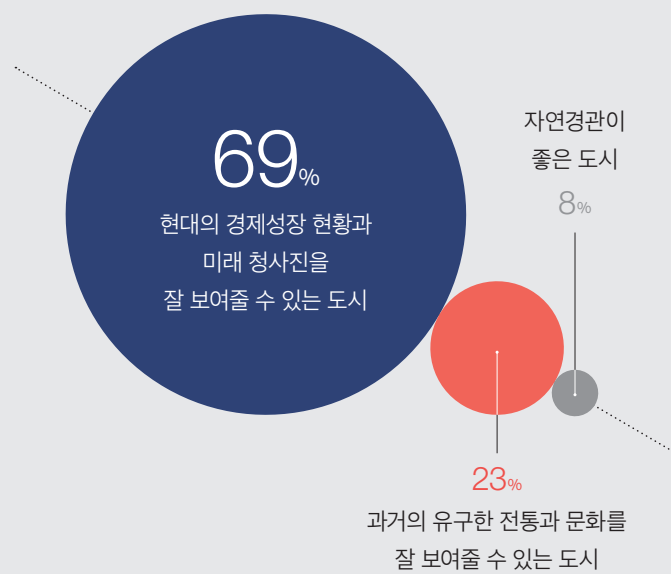


※ 공무원들은 특히 '공항과 숙박시설·회의장 간 거리'(43%)를 가장 큰 우려 요소로 선택한 반면, 민간인들은 '언어소통 어려움'(45%)을 가장 큰 우려 요소로 꼽아 대조를 이룸

8.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선정된 후 개최도시가 최우선 추진해야 할 사항



7.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서 가장 적합한 도시



※ 특히, '현대의 경제성장 현황과 미래 청사진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도시'는 93%의 외국 공무원들에게 의해 압도적으로 선택되었으며 APEC 회원국 시민들도 상대적으로 많은 72%가 이를 선택함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스마트 컨버전스 기기, 리보(Riv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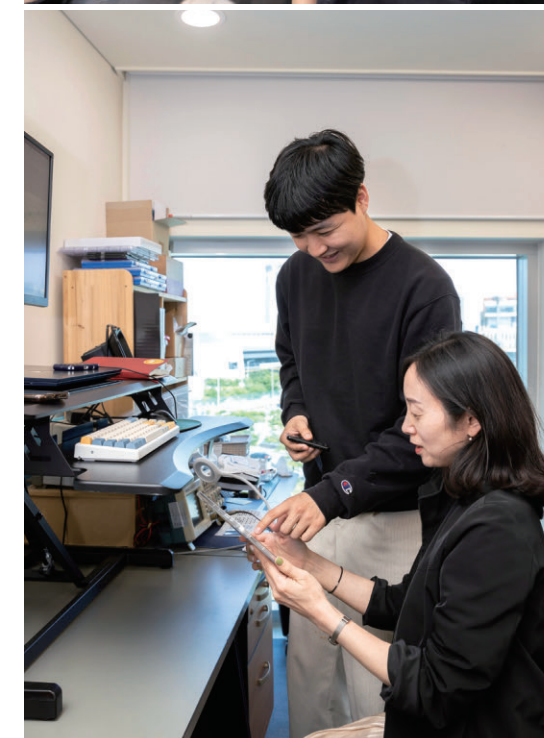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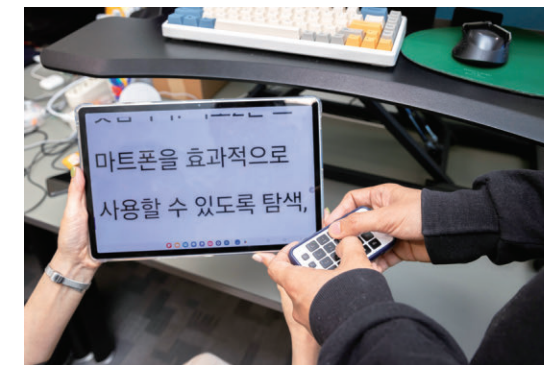
“리보는 내 디지털 라이프의 중요한 한 부분이며, 늘 가지고 다닙니다!”
리보를 사용하고 있는 한 사용자의 후기다. 일상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스마트폰이지만,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리보와 함께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스마트 컨버전스 기기, 리보를 지금 만나보자.



IFEZ 유튜브에서
리보의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리보(Rivo), 스마트폰과 시각장애인의 장벽을 허물다

인천 스타트업파크 내 입주하고 있는, ‘리보’는 전 세계 시각장애인을 위한 life-changing 솔루션을 개발하는 글로벌 소셜 벤처기업이다. 시각장애인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보조공학기기를 개발하여 시각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주고 있다. 먼저 이전 모델인 리보2는 스마트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탐색, 문자, 전화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 키보드다. 또한 조금 더 진화된 모델인 리보3는 리보2 기능 외에도 음성메모, 통화녹음, 음악과 오디오북, 음성과 진동시계, 양력과 음력 달력, 알람과 타이머, 계산기, 점자 사전, 화면 확대, 단축 앱 실행과 전화 걸기, 게임, 악기 연주 등의 기능을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하는 스마트 컨버전스 기기이다. 안재우 리보 대표는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는 대신 실제 버튼을 눌러 빠르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 스마트폰을 가방이나 주머니에 안전하게 넣어두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 여러 스마트 기기를 모두 연결해 두고 쉽게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에 대한 생각 끝에 세상에 리보를 출시하게 됐다.



정유라 (COO, 공동창업자)와 안내견 나라



Rivo

리보(주)

설립일 2017. 08. 08

업종 임베디드시스템, 보조공학기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204
인천스타트업파크 1-502 (송도동)

홈페이지 <https://rivo.me/ko/>



시각장애인용
초소형 다기능 보조공학기기 리보

리보 안재우 대표는 처음부터 보조공학(Assistive Technology) 솔루션에 대한 생각이 크지는 않았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로 미국에서 개최된 한 보조공학기기 전시회에 참가하게 되었고, 당시 부스를 방문하는 관람객 중 유독 시각장애인 분들이 많았다. 그때 시각장애인이 IT 기기에 관심이 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기존 제품을 보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이를 사용해 본 시각장애인들에게서 상당한 피드백을 받게 되었고, 시각장애인에게 아주 적당한 형태의 보조공학기기 리보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렇게 탄생한 리보는 시각

장애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어주고 있다. 장애로 인한 불편함은 그저 불편함에 불과할 뿐이며 그 불편함이 불가능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안재우 대표는 “리보를 통해 시각장애인들도 스마트 기기를 잘 활용해 일상에서 더 많은 것을 하고, 소통하며, 편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시각장애인용 보조공학 솔루션으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보조공학기기로서의 응용범위도 더 넓혀 현대를 살아가는 누구라도 첨단 문명의 이기를 누릴 수 있도록 사명과 책임감을 다해 전진해 나갈 것을 기대해 본다.



MINI
INTERVIEW

안재우
리보(주) 대표

안녕하세요. 먼저 <리보> 기업 소개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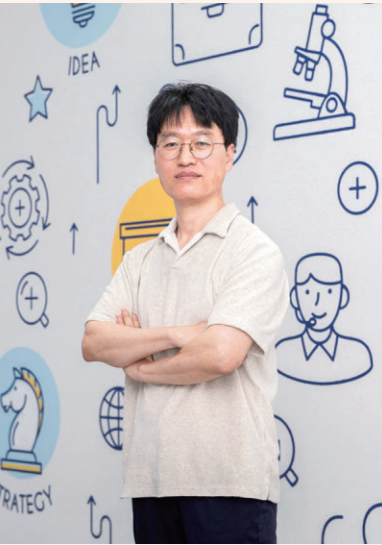
리보주식회사는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스마트폰 사용이 불편한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을 잘 사용할 수 있고 일상에서 필요한 여러가지 기능을 간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통합한 컨버전스 기기 리보를 만들고 있는 소셜벤처입니다. 누구나 간편하게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대부분의 시각장애인은 불편하고 느리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지 않게 되거나 새로운 앱에 대한 시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리보는 화면터치 없이 실제 버튼을 조작하는 것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정확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문자를 작성하며 전화 기능을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할 만한 기능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장치에 통합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기능만 제공하는 기존 제품은 55개국 시각장애인 고객이 사용 중에 있으며, 자체 기능을 추가 통합한 신규 제품은 작년 국내 판매를 시작으로 올해 글로벌 버전 판매 중입니다.

인천 스타트업파크에 입주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초중고를 인천에서 다녔지만 거의 집과 학교 사이를 열심히 걸어 다니기만 했을 뿐 인천이라는 도시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옛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문득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인천이 제게는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었을지 계속 가능한 멋진 도시로 발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송도에서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인천 스타트업파크의 홍보를 보게 되어 리보 사업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지원하였고 선정이 되어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점차 사전을 포함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컨버전스 기기를 개발하는 사업이기에 일제 강점기에 한글점자를 비롯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일에 헌신하신 송암 박두성 선생님의 생가가 인천이라는 것도 알게 되어서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리보>가 진행하고 있는 대표 사업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는 시각장애인용 보조공학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는 크게 전맹(blind), 약시(low vision), 그리고 시청각장애(deafblind)로 나누어집니다. 리보 시리즈 제품은 시각장애인이 화면을 보지 않고서도 스마트기기를 잘 사용하고 스마트



한 일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기능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화면이 또렷이 보이지 않거나 시력저하를 염려하는 약시 시각장애인분들도 사용하고는 있지만 전맹 시각장애인분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면확대, 문자인식, 이미지설명 등의 기능을 갖춘 약시 시각장애인용 제품이 올해 본격 출시될 예정이며, 눈이 보이지않고 귀가 들리지 않는 시청각장애인이 지식을 습득하고 세상과 소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은 2024년도 하반기 <리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실 예정이실까요?

시각장애인 사용자의 반응을 기반으로 리보의 기능을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연동되는 기기를 늘려 노트북, 스마트 TV, 그리고 키오스크와의 연동까지 시도해 볼 것입니다. 약시 시각장애인용 제품 출시와 더불어 시청각장애인용 제품에 대한 연구에도 더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정보를 더 쉽게 찾고 배우고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방법도 강구해 볼 계획입니다. 시각장애인과 사회와 정보를 하나로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 정보 접근의 장벽을 낮추고 이를 지속가능한 형태로 해결해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IFEZ 저널을 통해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많은 분들이 크게 관심을 둘 일은 아니겠지만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적정기술로서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혁신을 품고, 세상을 바꾸는 인천 스타트업파크 소식을 만나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마구 샘솟는 곳,
인천 스타트업파크가 IFEZ 내 입주해 있다.
스타트업파크 정보부터 주요 이슈까지 지금 만나보자.



NEWS

스타트업 파크 주요 이슈

1

스마트 시설 분야
혁신 스타트업 발굴·육성에 맞손



IFEZ는 지난 3월,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인천시설공단, 인천테크노파크 등과 '스마트 시설 분야 혁신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골자는 △스마트 시설 분야 혁신 스타트업 공동 발굴·육성, △스타트업 제품·서비스의 조기 상용화 지원을 위한 실증 프로그램 운영, △실증 지원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운영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 스타트업은 인천시설공단에서 제공하는 체육관·공영주차장·공원 등 실증자원을 통해 혁신 제품·서비스의 성능을 검증받을 수 있다. 또 인천시설공단은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천스타트업파크는 '인천스타트업파크 트라이아웃 (TRYOUT)'이라는 통합 브랜드 네임을 앞세워 기존 8개의 공공 분야 협력 파트너와 함께 실증 거버넌스를 구축, 인천이 스타트업 혁신 기술의 실증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소 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204
시설안내 사무실, 회의실, 인스타Ⅰ(실증센터, 피칭연습실, 홍보관 등),
인스타Ⅱ(그룹코칭실, 오픈스테이션 등), 인스타Ⅲ(오픈준비중)

2

IFEZ·인천TP·현대모비스,
스마트 모빌리티 스타트업 육성에 힘 합친다



IFEZ와 인천테크노파크는 지난 4월 15일,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현대모비스와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스타트업 육성 지원을 위한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골자는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혁신 스타트업 공동 발굴·육성, △스타트업 제품·서비스의 조기 상용화 지원을 위한 실증 프로그램 운영, △실증 지원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운영 등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스타트업파크는 현대모비스의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실증 자원·실증 비용을 제공하는 트라이아웃 (TRYOUT) 실증 프로그램의 Smart-X Mobility 민간 실증 프로그램을 시작, 스타트업들의 혁신적인 기술·제품의 실증에 많은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 현대모비스는 앞으로 실증을 통한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스타트업의 제품·기술 혁신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인천스타트업파크는 7개 공공기관, 8개 민간기업, 7개의 대학과 협력, 82개 스타트업의 제품·서비스 현장실증을 지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민간 분야 실증 협력 파트너를 더 확보, 실증 지원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인천 스타트업파크
홈페이지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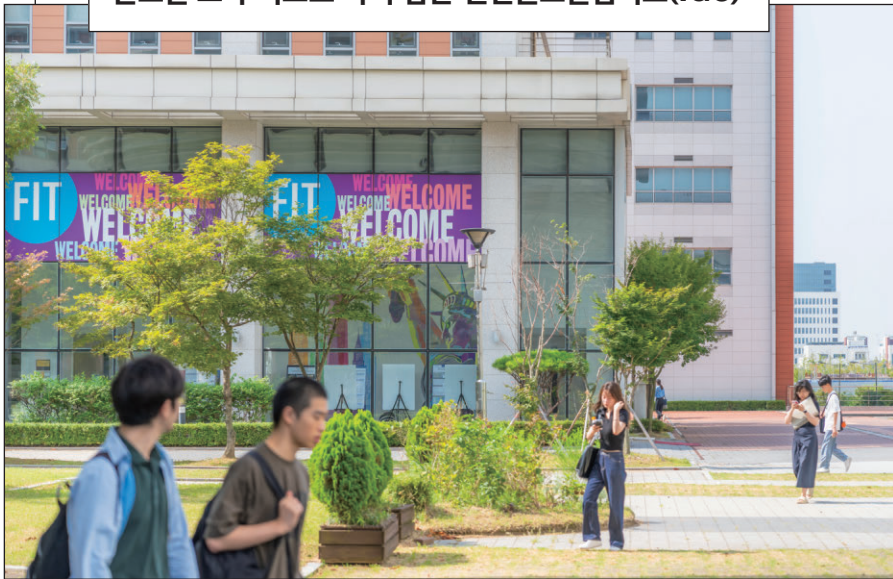
IFEZ 커뮤니티 한 눈에 보기

IFEZ 내에는 UN 국제협력기구부터 송도글로벌캠퍼스(IGC),
글로벌센터까지 다양한 커뮤니티가 공존한다.
IFEZ를 이루는 커뮤니티들의 소식을 지금 만나보자.

ISSUE
1

GLOBAL CAMPUS

글로벌 교육 허브로 자리 잡은 인천글로벌캠퍼스(IGC)



올해 봄 학기 기준 인천글로벌캠퍼스(IGC) 학생 총원율이 94.1%에 달해 IGC가 글로벌 교육 허브로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다. IFEZ에 따르면 IGC의 올해 봄 학기 기준 재학생은 총 4,225명에 학생 총원율이 94.1%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가을 학기 3,890명의 87.7%와 비교해 학생수는 335명, 6.4% 포인트가 각각 늘어난 것이다. 또 지난 2012년 개교 당시 45명과 비교하면 약 93.8배가 늘어났다. 이와 함께 올해 봄학기 신입생은 지난해 577명에서 709명으로 22.8%가 증가했다. 입주 대학별로 살펴보면 유타대

아시아캠퍼스가 34%, 한국조지메이슨대가 25%, 나머지 입주 대학도 각각 약 20% 늘어났다. 또 입주대학 교수진도 지난 2013년 38명에서 291명으로 증가, IGC 교육환경의 질을 높이고 있다.

IFEZ와 IGC운영재단은 학생 총원율 증가가 졸업생들의 글로벌 및 대기업·공기업 취업을 비롯해 적극적인 신입생 모집, IGC 시설 활성화, 지역사회 협력 구축, 산학협력 활성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IGC 입주 5개 대학 졸업생 1,400여명은 구글, 아마존, 메타 등의

글로벌기업, 삼성전자, LG전자, SK바이오 등 국내 대기업,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등 유수의 공기업 등에 취업하고 있으며, 존스홉킨스 대학원, 스위스연방 공과대학원 등에 진학, 석·박사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IGC는 미래를 이끌어 나갈 국내 인재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해외 인재들을 국내로 유입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IGC 학생 가운데 약 30%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전 세계 50개국 출신의 외국인들과 복귀 유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그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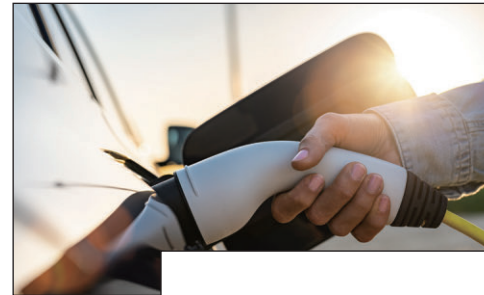
고급 인재의 확보가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만큼 앞으로 IGC의 역할과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에는 조지메이슨대학교와 유타대학교 홈 캠퍼스 학생 151명이 IGC에서 수업을 듣기 위해 단기 방문, 6개월에서 1년 간 IGC에서 수학하며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올해로 12주년을 맞이한 IGC는 글로벌 교육 허브 조성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외국 명문대학 5개교를 유치,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대학 연합캠퍼스로 운영되고 있으며 글로벌 교육 모델의 선도적인 우수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IGC 1단계 사업으로 한국뉴욕주립대학교의 스토니브룩대(SBU)와 패션 기술대(FIT),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명문대학의 연구소인 한국스탯포드센터가 입주, 스마트시티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윤원석 IFEZ 청장

“높은 학생 총원율은 IGC가 차세대 글로벌 인재 양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글로벌 교육 허브 조성이라는 취지에 부합하고 있다는 의미다. 앞으로 IGC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캠퍼스가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

ISSUE
2

UN국제기구-GREEN CLIMATE FUND 녹색기후기금 인도 공기 질 개선할 ‘전기차 플랫폼’ 출범



지난 4월 22일, 인도 뭄바이에서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이 탄생했다. 이는 녹색기후기금(GCF)이 맥쿼리자산관리(Macquarie Asset Management)와 함께 진행하는 ‘인도 E-모빌리티 자금 계획’의 일환으로, 인도의 공기 질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차량 배기가스는 인도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3%를 차지하며 인구 증가 및 산업화·도시화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낮추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전기차 보급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출범한 전기차 플랫폼 ‘베르텔로(Vertelo)’는 차량 관리, 충전 인프라



및 에너지 솔루션, 차량 수명 관리 등 전기차와 관련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소비자가 더욱 쉽게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차량 리스 및 금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처럼 인도 내 전기차 보급 속도를 높여 공기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베르텔로는 녹색기후기금의 E-모빌리티 분야 최초 민간 투자로, 향후 10년간 15억 달러(한화 약 2조 원)를 동원할 방침이다. 녹색기후기금은 현재 E-모빌리티를 포함해 인도 내 총 10개 기후 변화 프로젝트에 GCF 자금 총 5억 6,680만 달러(한화 8천억 원)를 지원하고 있다.



IFEZ Global Center

2024 IFEZ 강화도 역사 투어

IFEZ 글로벌센터에서는 ‘한국 역사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을 초청해 강화도 투어’에 함께 합니다. 고대 유적과 강화 평화 전망대 등 다양한 관광 명소를 방문하고 경험하는 시간을 만나보세요.

일시	2024년 5월 30일(목) 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 30분
집합장소	5월 30일(목) 오전 9시 30분, IFEZ 글로벌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 대로 175 G-타워 1층)
참가인원	IFEZ 거주 국외 22명 한정 - ARC(외국인등록증) 소지자에 한함 - 선착순
요금	무료

교통	버스 제공
일정	IFEZ 글로벌센터 - 전등사(사찰) - 고려궁지(고대유적) - 용흥궁(궁궐) - 강화평화전망대 - IFEZ 글로벌 센터 - 강화풍물시장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락처	· 전화 번호 : 032)453-7350 · 이메일: ifezglobal@korea.kr · 웹 사이트: https://www.ifez.go.kr/global



여름날 걷기 좋은 도시 : IFEZ 노을산책 투어

선선한 여름, 산책이 생각나는 밤에 떠오르는 IFEZ의 공원을 만나보자. 바닷길을 따라 이어진 산책로부터 붉은 노을을 배경 삼아 걷는 공원까지. 올해 여름밤을 IFEZ에서 마음껏 만끽해 보자.

바닷길을 따라 이어진 선선한 노을산책
송도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롱비치파크)

롱비치파크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8-2

문의 032-456-2860

주차 주차가능



선선한 여름밤 바닷가를 따라 걷기 좋은 공원이 송도에도 있다. 송도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송도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은 바닷가를 따라 쪽 이어진 산책로가 트레이드마크다. 바닷가를 따라 길게 이어진 산책로가 있다는 의미로 롱비치파크라고도 불리며, 주말이면 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이끄는 곳이기도 하다. 끝없이 펼쳐진 서해바다를 가로지르는 인천대교를 볼 수 있으며, 일몰 시간에 만나는 아름다운 노을이 장관을 이루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바닷가 산책로를 따라 걸어가는 중간 중간 만나는 이국적인 조형물이나 벤치, 흔들의자, 쉼터 등은 산책을 나온 이들이 쉬어가기에 좋은 공간으로 잘 구성되어 있다. 특히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기 참 좋은 트램펄린도 마련되어 있어 아이와 함께 방문하는 가족들의 발걸음도 끊이지 않는다. 특히 바닷가를 따라 이어진 산책로는 킥보드나 자전거를 타기에도 큰 무리가 없이 넓고 반듯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전망대에 오르면 서해바다와 인천대교를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점이 이곳의 큰 메리트이기도 하다.

#롱비치파크
#여름밤
#바닷길산책



#생태공원
#노을명소
#보존숲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며 걷는 산책길 청라 노을공원

청라 노을공원
주소 인천 서구 로봇랜드로 291
문의 032-456-2740
주차 주차가능

나들이가기 딱! 좋은 공원이 청라에 있다. 청라 노을공원은 해변공원과 함께 과거 청라도로 바다와 섬이었던 곳으로 지구 내 유일한 보존숲이 입지하여 생태적으로 그 가치가 높은 숲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노을공원'이라는 이름처럼 청라 노을공원에서는 청명한 하늘과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하기 좋은 스폿들이 많이 자리해 있어 산책하기 좋은 여름날 밤이면 많은 주민들의 발걸음을 이끄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여름밤이 아닌 낮에 방문해도 참 좋은 곳인데, 이유는 자연으로 둘러싸인 숲과 같은 공원이기 때문이다. 푸른 자연을 마음껏 만끽하며 가족, 연인, 친구가 함께할 수 있는 나들이와 숲 체험 프로그램, 다양한 익스트림 스포츠(스케이트플라자, 바이크파크, RC경기장)를 체험할 수 있는 도심 속 힐링 공간이 되어주기도 한다. 총 면적 189,914.9㎡에 이르는 노을공원에는 익스트림 스포츠장 이외에도 가족피크닉장, 전망시설, 벽천 경관수로, 어린이놀이시설, 레인가든 등도 위치해 있어 공원을 즐기는 재미를 더해준다.



영종도의 역사를 따라 걷는 저녁 영종진 공원

영종진 공원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구읍로 63 (중산동)
문의 032-279-2239
주차 주차가능



#역사문화공원
#영종도
#야경명소



영종진 공원에 대해 알기 전, 영종진이란 무엇일까. 영종진이란, 원래 화성시에 있던 영종진만호를 효종 4년(1653년)에 군사적 요충지인 현재의 구읍나루 인근 태평암 지역으로 옮겨서 설치했고, 영종진을 인천으로 옮긴 것은 청군의 압박에 대비하여 도읍 방어에 긴요한 해상통로 중심인 강화도의 방어를 튼튼히 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점차 소실되어 현재는 일부 흔적만 남아 있어 그 흔적을 공원 내에 보존한 공간을 말한다. 인천 중구에 위치해 있으며 도시 테마공원으로 바다를 따라 걷기 좋은 바닷길부터 문화마당, 산책길 등 다양한 테마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시원한 여름 밤, 월미도의 야경과 인천대교의 일몰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바다와 함께 영종역사관에 들러 영종도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해보며 산책하고 구경하기 좋은 공원이다.

아트센터인천

What's on?

독창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를 자랑하는 아트센터인천에서는 특별한 공연들이 가득 펼쳐진다.
고된 하루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 해줄 <퇴근길 콘서트>부터 쉽게 접하기 어려운 <월드아티스트 내한 공연>과
프로그램, 클래식의 새로운 문법 <마크 민코프스키 & 루브르의 음악가들>의 공연까지.
아트센터인천의 what's on을 지금 만나보자.

고단한 하루의 아름다운 마무리 직장인을 위한 <퇴근길 콘서트>

아트센터 인천의 인천시 내 직장인을 위한 공연, <퇴근길 콘서트>가 2022년·2023년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다시 한 번 찾아왔다. 2024년,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퇴근길 콘서트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오페라 명곡을 우리 시대 최고의 성악가의 무대로 만나는 <오페라 갈라 콘서트>로 5월
첫 시작을 알린다. 공연에는 유럽 등 세계무대에서 활동하는 테너 김광현과 소프라노 이명주 등
최고의 성악가들이 함께하게 된다.

또한 두 번째 퇴근길 콘서트는 영화 속에서 만난 클래식 음악인 <시네마 앤 클래식>을 주제로
귀에 익숙한 영화 속 명곡을 통해 하루의 고단함을 풀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세 번째 공연은 이
시대 최고의 뮤지컬 넘버를 들려주는 <그레이티스트 뮤지컬>로 미국이 낳은 최고의 작곡가 조지
거슈윈과 레너드 번스타인의 명곡을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와 뮤지컬 배우 김경록과 이지수의
무대로 만날 수 있다.

24년 퇴근길 콘서트 마지막 무대는 발레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작곡가 차이콥스키의 최고의
작품인 '잠자는 숲속의 공주',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을 젊은 발레 스타들이 추는 환상적인
무대로 잊지 못할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뛰어난 음악성과 명쾌한 해설로 많은 사랑을 받는 김광현의 지휘와 해설로 더욱 알찬 시간으로
찾아가는 퇴근길 콘서트는 디토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그 재미를 더하고자 한다.

공연명 직장인을 위한 <퇴근길 콘서트>

공연일시 2024년 5월 29일, 7월 10일, 10월 16일, 12월 4일 (수) 19:30

공연장소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티켓가격 전석 2만원 *인천시 내 직장인 50%할인

관람연령 8세 이상

예매 아트센터인천, 인터파크



지휘 김광현

지휘 김광현

바이올린 대니 구 © Sangwook Lee

소프라노 이명주



아트센터인천 단독으로 선보이는
월드아티스트 내한 공연과 프로그램



“파벨 하스 콰르텟의 연주는 숨 막힐 듯이 강렬하고 치명적으로
아름답다.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 음악에 헌신한다.” - BBC 라디오 -

수크 트리오, 스메타나 콰르텟, 야나체크 콰르텟 등 걸출한
실내악단을 배출한 '실내악 강국' 체코의 현재를 대변하는 파벨 하스
콰르텟(Pavel Haas Quartet)이 6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2015년과
2018년 두 차례의 한국 공연에서 뛰어난 기교와 표현력, 독창적인
해석으로 관객들을 단숨에 사로잡은 파벨 하스콰르텟. 올해 다시 한
번 아트센터인천에서 국내 단독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번 연주에서는 드보르작의 제자이자 사위이기도 한 수크의
'옛 체코 합창 St.Wenceslas에 대한 명상'과 스메타나의 현악4중주
제1번 '나의 생애로부터', 그리고 야나체크의 현악4중주 제2번
'비밀편지'를 들려줄 예정으로, 체코가 낳은 위대한 작곡가들의
음악적 유산을 감상할 수 있었다. 치밀한 앙상블과 독창적인 해석,
거침없는 질주로 최고의 몰입감을 선사하는 파벨 하스 콰르텟,
그들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됐다.

공연명 파벨 하스 콰르텟 Pavel Haas Quart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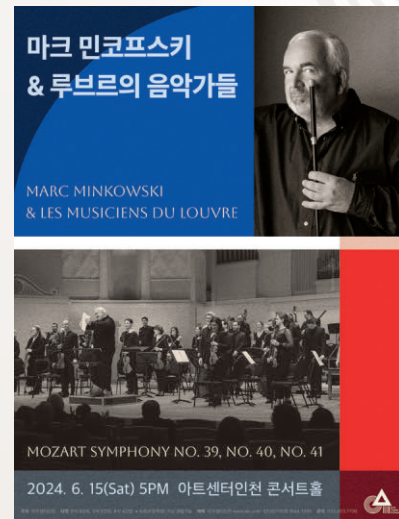
공연일시 2024년 5월 18일 (토) 17:00

공연장소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티켓가격 R석 7만 원, S석 5만 원, A석 3만 원

예매 아트센터인천, 인터파크

정격과 파격을 넘나드는 클래식의 새로운 문법!
마크 민코프스키 & 루브르의 음악가들



바로크 음악부터 오페라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아우르며
세계 주요 무대에서 중흥무진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는 지휘자
마크 민코프스키와 그가 1982년에 창단한 루브르의 음악가들이
8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는다. 이들은 시대 악기로 바로크, 고전
및 낭만주의 레퍼토리를 유려하게 소화하는 동시에 언제나
현대적이고도 참신한 해석으로 관객들을 설레게 한다.

이들이 오는 6월 아트센터인천 무대에서 단독으로 연주할
작품은 모차르트 교향곡 39번, 40번, 41번으로 모차르트가
사망하기 3년 전에 작곡된 마지막 교향곡들이다. 특히 교향곡
40번과 41번은 2006년에 이미 음반으로도 출시한 바 있으며, 최근
이들의 투어 프로그램에 자주 포함되는 레퍼토리이기도 해 더욱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연명 마크 민코프스키 & 루브르의 음악가들

Marc Minkowski & Les Musiciens du Louvre

공연일시 2024년 6월 15일 (토) 17:00

공연장소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티켓가격 R석 9만 원, S석 6만 원, A석 4만 원

예매 아트센터인천, 인터파크



아트센터인천의
자세한 공연정보를
만나보세요.



송도컨벤시아 ISSUE & CALENDER

MICE 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는 전시컨벤션센터다. 국제 회의부터, 인센티브 관광, 각종 전시박람회 등 복합적인 산업을 아우르는 송도의 랜드마크, 송도컨벤시아. 최대 450부스까지 수용 가능한 전시장은 물론 국제 회의장, 행사장이 마련되어 다양한 국내외 컨벤션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며 MICE 산업의 떠오르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MICE 산업의 떠오르는 메카, 송도컨벤시아의 이달의 이슈부터 행사일정까지 한 눈에 담았다.

MICE 산업?
마이스 산업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와 박람전시회(Events & Exhibition)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이달의 CONVENSIA!

송도국제 회의복합지구, 문체부 공모 ‘6년 연속’ 선정

인천시는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지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올해 총 12억 8000만 원(국비 6억 400만원)을 투입해 다양한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국제회의 산업법에 따라 국제회의시설이 집약된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감면하고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번 공모를 추진하기 위해 MICE 산업 트렌드 분석, 인천시 국제회의 복합지구 육성 진흥계획을 바탕으로 전문회의시설·집적시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주요 사업 방향을 도출했다. 또한 이번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국제회의 집적시설 홍보 및 편의시설 개선 지원, 국제회의 복합지구 브랜드 홍보 및 유치 마케팅, 마이스(MICE) 참가자 대상 국제회의 복합지구 이동 편의 개선, 지역 문화·관광자원 연계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송도컨벤시아에 LED 사이니지, 바이오월 설치 등 친환경 디지털 숲을 조성하고 마이스 행사 성공 개최를 위해 웰컴 셔를 지원 등 참가자 안내 및 이동 서비스 등 연계 편의성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국제 마이스 경험과 국제복합지구 구축을 바탕으로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Korea MICE Expo) 지원했다.

2024. 6. 송도컨벤시아 행사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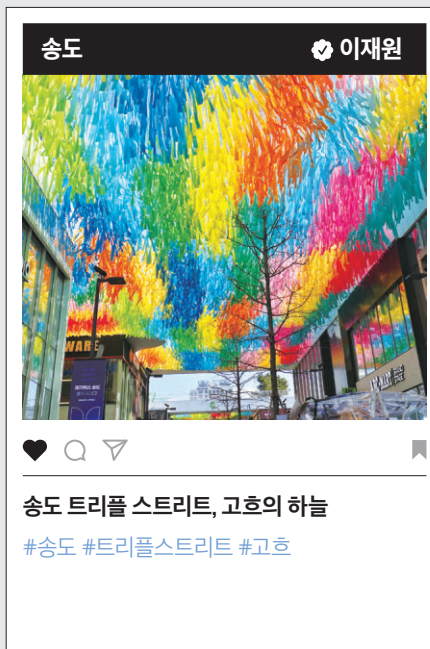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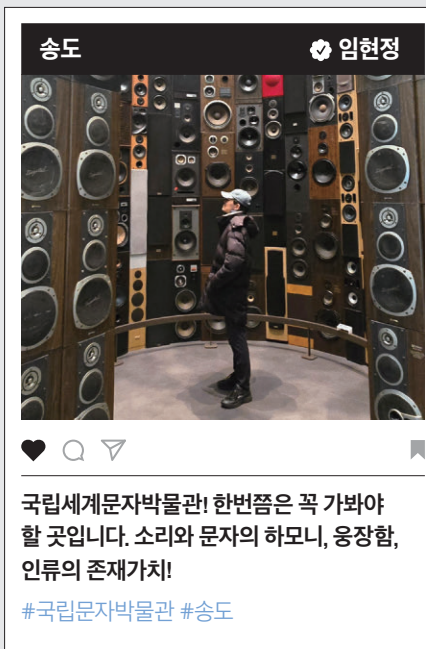


전시행사 더
자세히 알아보기

S	M	T	W	T	F	S
						1
2	3	4 중고자동차 수출상담회	5	6 현충일 • 2024 인천 가구박람회	7	8 ·암웨이 프리덤 OSR(6월) · 2024 현역가왕 전국투어 콘서트 - 인천
9	10	11 • 2024년 인천광역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12 알베르토 문디의 무료강연	13	14 • 학익 SK뷰 입주자 박람회 • 2024 대한두경부 중앙학회 춘계학술대회	15
16	17	18	19 • 2024 국제해양 안전대전	20	21	22 • 미스트롯3 콘서트
23	24	25	26	27 • 웰-슬립페어 2024	28	29
30						

추억을 공유하는 일상한컷

IFEZ에서 보낸 독자분들의 일상을 담았습니다.
송도·영종·청라에서 보낸 독자분들의 하루, 지금 만나보세요.



IFEZ 일상이 담긴 사진을 짧은 글과 함께
응모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로
<IFEZ 저널>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마감 2024년 6월 10일(월)까지
보내주실 곳 ifez2021@naver.com

※ 성함, 주소, 연락처를 보내주신 분에
한해 추첨을 진행합니다.
※ 당첨자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LANDMARK QUIZ

IFEZ를 알아가는 랜드마크 퀴즈

IFEZ를 더 신나고 즐겁게 만끽할 수 있는 랜드마크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문제를 꼼꼼히 읽은 후 정답을 맞춰보세요.



□□□는 송도 센트럴파크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면적 8만 6000여㎡에 최고높이 145.8, 지하 2층 ~ 지상 33층 규모로 2013년 2월 완공된 송도의 랜드마크다. 완공당시는 I타워였으나, 국제연합(UN)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입주하며 □□□로 변경됐다. □□□에는 송도·영종·청라를 아우르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청사 관련 사무실과 국제연합(UN) 기구들이 입주해 있으며, 33층에는 IFEZ 홍보관 전망대가 위치해 있는 곳이다.

Quiz 1.

빈칸에 들어갈 이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① 송도컨벤시아 ② G타워 ③ 트리플타워 ④ 시티타워

Quiz 2.

위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 ① 국제연합(UN) 기구들이 입주해 있다. ② 전망대는 30층에 위치해 있다.
③ IFEZ의 새로운 청사 관련 사무실이 입주해 있다. ④ 완공당시는 I타워 었다.

마감 2024년 6월 10일(월)까지 보내주실 곳 ifez2021@naver.com

지난호 당첨자 김수경 김윤수 이수진 강호우 민창숙 장은희

※ 정답, 성함, 연락처를 보내주신 분에 한해 추첨을 진행합니다. ※ 당첨자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내가 그린 IFEZ

독자분들만의 색으로 표현되어진 <아트센터 인천>을 담았습니다.

지난호 당첨자 이승원

! IFEZ 컬러링 이벤트에 그동안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랜드마크 퀴즈>, <일상 한 컷> 이벤트로 찾아뵈 예정이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